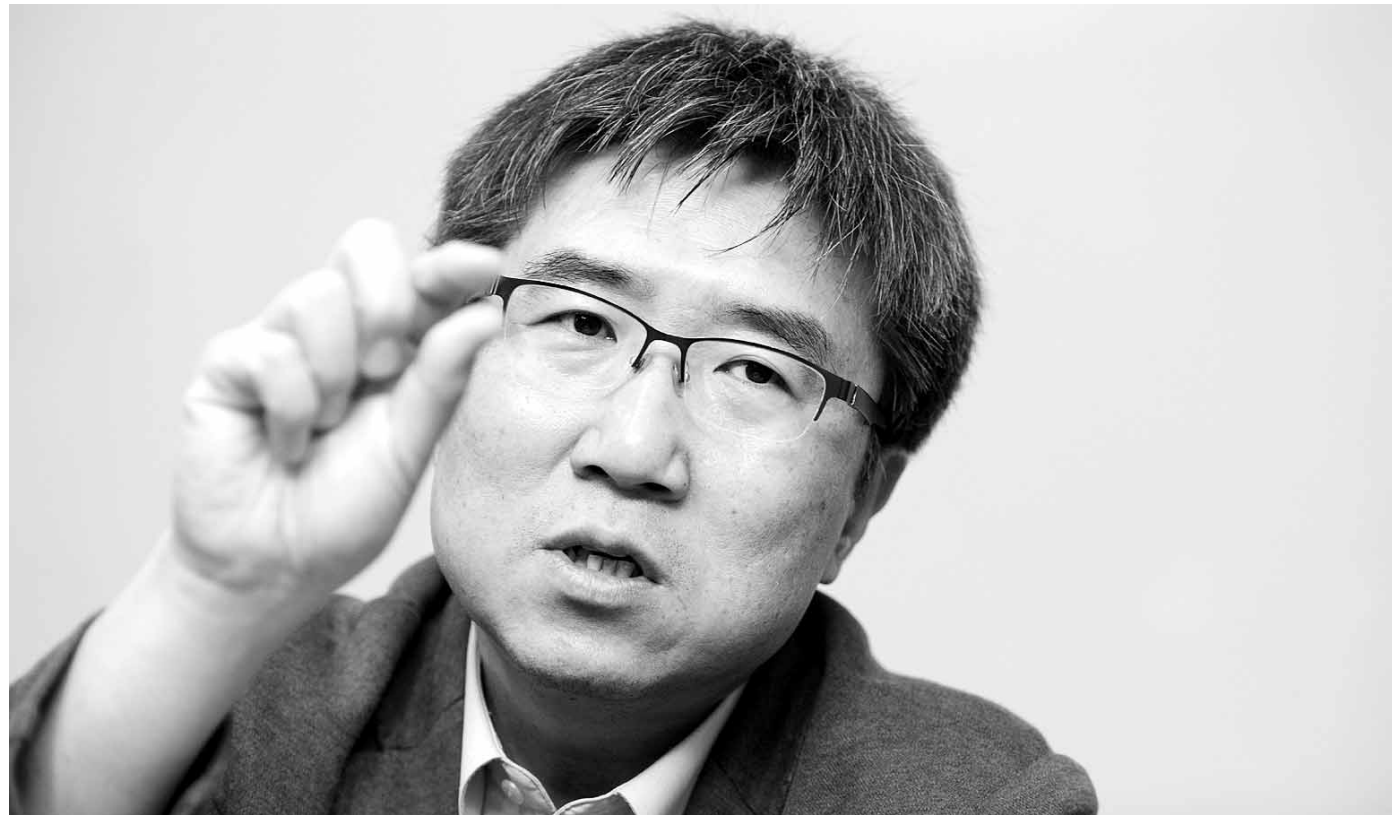


“요만큼도 빈틈 없게... 금융 시스템 철저히 검증하자”

컬처 & 피플

케임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세계적인 경제학자... 광주출신 장재식 전 산자부장관이 부친 시장개방 자유무역에 거침없는 ‘돌직구’... “금융위기 온다” 경고

그가 야구선수를 꿈꿨다면 목격한 직구를 던지는 ‘승부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달변인데다 매우 논리적이었다. 말이 많으면 가볍고 공허한 데 그의 말은 돌직구처럼 목적했다.

최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부키) 출간에 맞춰 고국을 찾은 장하준(51)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주요 경제학계의 ‘전가의 보도’인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등을 가차없이 공격한다. 그가 까발리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는 지난 4월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가 조사한 ‘올해의 세계 사상가 65인’ 가운데 18위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병역인 경제학 관련 책을 쓰면서 다양한 변주로 경제를 다루면서도 일관된 좌표를 유지하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의 답이 있다고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 교수는 광주 출신인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아들이자, 자신의 뿌리가 남도이니 만큼 애정도 남달랐다. 그는 올 연말까지 한미 FTA가 발효돼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이미 20년 쌀시장 개방을 약속해놓고 그동안 대체 작물을 키워보라고 권장하면서 현상유지만 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농업은 고급산업화해야 합니다. 전향적으로 농업수출품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지역 경제활성화가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큰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하면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어서다.

“독일·일본·스웨덴·미국·스위스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이 중소기업 영역이기 때문에 광주·전남 각 지역별로 특화해서 키우는게 가능하고 바람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중소기업에서 취약한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돕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겠죠. 단체장, 정치인들이 단기에 성과를 올리려는 조급증을 버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 교수는 두말 필요 없는 엘리트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케임브리지 대학

으로 건너가 불과 27살에 교수직을 꿰찼다. 영국으로 건너가 공부 한 지 불과 4년만이었다. 동생 장하석 교수도 같은 대학 과학사·과학철학과 종신 석좌교수다.

그는 사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출간에 맞춰 고국을 방문했지만, 책 보다 그의 경제 전망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등 유명세를 치렀다. 2008년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또 다시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예사롭지 않은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금융위기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지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 주식시장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현재 20% 가량 더 높아요. 미국 경제 사이즈는 커지지 않았음에도 주식시장 가격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요. 막상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본은 결국 미국·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자본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고픈 얘기는 투기성자본의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와 금융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본을 인정하면서도 금융 등 돈을 굴리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학에 비유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금융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 상품의 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 금융상품이 워낙 많고 복잡해져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렇게 금융자본 시장이 커지면 결국 통제 불능상태가 되고 만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혜미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제 발전하려면 부품 소재산업 육성해야 단체장들이 단기간 성과 욕심 버리고 R&D에 적극적 투자 고급인력 양성 나서야
”



박진현의 문화카데

니콜라스 세로타 영국 데이트모던 미술관장, 리처드 암스트롱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장, 오쿠이 엔위저 독일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관장, 피오나 로메오 뉴욕 현대미술관 디지털 콘텐츠 & 전략총괄 디렉터...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강담에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와 개관 10주년을 맞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공동개최한 아트포럼 때문이었다. ‘확장하는 예술경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1세기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오는 기자간, 21세기 미술관의 비전을 역설한 거물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황영성 전 관장이 사퇴하면서 새로운 관장을 선임해야 하는 광주시립미술관(시립미술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시립미술관은 전국 최초의 국립미술관이지만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다.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미술인프라이지만 시스템이나 조직, 인력 운영 등은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새 미술관장 선임을 앞두고 시립미술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문화광주’ 이끌 미술관장은?

등을 고민해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연사들은 명성을 입증하듯 현대미술의 확장과 진화, 미술관의 역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무엇보다 “미술관은 실험실(Lab)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니콜라스 세로타 관장의 메시지는 깊은 인상을 주었다. 미술품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전시장이 아닌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발견’하는 상상력의 보고(寶庫)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 등이 보편화 된 21세기에는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많은 만큼 이를 끌어 들이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예술가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포럼취재를 마치고 광주로 내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등 4~5명의 후보들이 지원전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윤 시장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력후보로 꼽히는 등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의 ‘낙점’을 얻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추천을 받아 관장을 뽑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적임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인력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시립미술관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관장은 국제적인 안목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CEO이어야 한다. 특히 미술관의 개념과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갇혀나 전횡적 프레임에 갇힌 20세기형 리더는 곤란하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아리랑축전 참여 ‘아리랑지기’ 500명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10월 3일~4일)에 참여할 ‘아리랑지기’ 500명을 모집한다.

아리랑지기는 축전기간 동안 SNS로 행사를 홍보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빛어라 아리랑’ 경연대회 본선 시민평가단 등으로 활동한다.

축전이 끝난 이후에도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아리랑 콘텐츠 개발·육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아리랑지기에

게 ‘문화예술카드’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공연·축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카드는 광주지역 소극장, 광주문화재단 상주단체의 공연 등의 현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리랑지기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i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 까지 아리랑축전사무국 메일(gjarirang@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남 남남

북녀 북녀

예정통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에 양준혁 ♥ 김은아